

# 반짝 반짝 빛나는 박재현... '최고의 히트상품' 떴다

리드오프 이상의 가치... KIA 핵심으로 우뚝

백업에서 당당한 주전으로, 팀 내 타율 1위·OPS 0.922 존재감 진화에 진화, 가파른 상승세... '결승타·결승 홈런' 해결사 우뚝 팀 내 도루 1위 '뛰는 야구' 선봉... 전 포지션 소화 완벽 수비 '담'



최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는 단연 박재현이다. 단순히 잘 치는 수준이 아니다. 리드오프로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 분위기까지 흔들고 있다.

12일 기준 박재현은 35경기 타율 0.339, 5홈런, 19타점, 8도루를 기록하고 있다. 팀 내 타율 1위이자 리그 전체 8위다. 홈런과 타점 부문도 팀 내 공동 2위에 올라 있다. 세부 지표도 뛰어나다. OPS 0.922를 비롯해 장타율 0.530, 출루율 0.392, 멀티히트 10차례다.

지난해 58경기 타율 0.081에 그쳤던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2025년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25순위 출신이다. 올해 연봉은 5천만 원이다. 지금은 KIA 타선에서 빼놓기 어려운 선수가 됐다. 분명한 눈에 띄는 성장세다.

시즌 초반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백업 자원에 가까웠다. 대주자와 교체 출전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4월5일 NC와의 홈 경기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그는 기회

를 놓치지 않았다. 8회 2루타로 출루한 뒤 추가 득점까지 했다.

이후 타격감이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8경기 연속 안타 행진도 이어갔다. 타순도 9번에서 1번으로 격상했다. 4월 타율은 0.280이었다.

5월 들어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 최근 10경기에서 타율 0.450, 홈런 4개, 10타점을 기록 중이다. 12일 두산전까지 4경기 연속 멀티 안타 행진이다. 팀 승리 때마다 그의 이름이 있었다.

지난 8일 롯데전에서 멀티홈런 포함 4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결승 홈런도 그의 방망이에서 나왔다. 5일 한화전에선 5타수 4안타 4타점(1홈런)으로 타선을 이끌었다. 승부를 가른 적시타 역시 박재현이었다.

특히 타석 접근법이 달라졌다. 초구부터 과감하게 방망이가 나온다. 빠른 카운트에서 승부를 걸고, 장타까지 만들어낸다. 상대 배터리 입장에서 경기 시작부터 부담스러운 타자다.

출루만 하는 리드오프가 아니다. 올 시즌 1번 타자로 나선 경기에서 타율 0.353, 5홈런, 12타점, 장타율 0.647을 기록 중이다. 단타

와 도루에만 의존하던 전형적인 테이בל레이터 이미지와는 결이 다르다. 한 번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장타력까지 보여주고 있다. 하위(9번) 타선에서도 3할대 타율과 7타점을 때렸다. 타순과 관계없이 결과를 만들어냈다.

찬스에서든 강하다. 득점권 타율이 0.400이다. 규정 타석 중 리그 7위다. 만루에선 4타수 2안타 5타점.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타율 0.311으로 꾸준하다. 최근 팀 타선의 결정력이 떨어진 마당에 해결사 역할까지 해주고 있다.

그의 활약은 타석에만 머물지 않는다. 주루에서도 팀의 발이 되고 있다.

8도루에 성공률은 88.9%다. 팀 내 도루 1위다. 상대 배터리의 타이밍을 읽고 움직인다. 무작정 뛰지 않는다.

수비도 안정적이다. 외야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팀 내 외야수 중 유일하게 실책이 없다. 강한 어깨는 덩이다. 주자의 득점과 진루를 끊어낸 보살도 2차례 나왔다.

물론 약점이 없는 건 아니다. 0-2 카운트 타율은 0.143, 1-2에선 0.167이다. 불리한 카운트에 몰리면 삼진 비율이 높아진다. 언더핸드 투수 상대 성적도 아직 안타가 없다.

그럼에도 현재 팀 내에서 존재감은 가장 선명하다.

KIA는 올 시즌 들쭉날쭉한 경기력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박재현은 공수주에서 모두 힘을 보태며 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시즌 초반 KIA가 건진 가장 확실한 카드다. /주홍철 기자



KIA 박재현이 지난달 26일 열린 롯데와의 홈 경기에서 데뷔 첫 홈런을 터뜨린 후 환한 표정으로 베이스를 들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남자 400m 릴레이 T20 초등부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광주선수단(왼쪽)과 여자 400m 릴레이 T20 초등부에서 금메달을 따낸 전남선수단이 시상식이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 광주, 신윤호·이범준·임성민·정정은 '金 합작' 전남, 박은별·박은서·임하윤·황다연 '金 합창'

부산시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일차를 맞이한 광주선수단이 육상, 수영, 보치아 등 3개 종목에서 메달레이스를 이어갔다.

광주는 이날 육상에서 5개(금1, 은3, 동1)의 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400m 릴레이 T20 초등부에서 신윤호(금호초 3), 이범준(동산초 4), 임성민(금호초 6), 정정은(계수초 5)이 1분14초57의 기록으로 금메달 레이스를 이어갔다.

이어 권나림(광주세광학교 2)이 여자 100m T13 고등부에서 2초244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신현성(광주세광학교 3)과 용상엽(광주세광학교 3)이 남자 100m T12 고등부와 100m T13 중등부에서 14초290과 21초140의 기록으로 나란히 은메달을 획득했다.

육상 남자 100m T13 고등부 윤하민(은광학교 1), 남자 원반던지기 F12 중등부 채진영(은광학교 3), 여자 100B T11 중등부 노연희·이지아(은광학교 3)가 '금빛 질주'를 선보였다.

이어 박은별·박은서·임하윤·황다연이 팀을 이끈 여자 400m 릴레이 T20 고등부, 강유림·국사랑·김가영·김예지·송지우가 함께 뛰 여자 400m 릴레이 T20 중등부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다.

수영에서는 정우찬(여수양지초 6)이 남자 자유형 50m S7-S8 초등부에서 1분12초34의 기록으로 값진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밖에 송진우(함평영화학교 3)는 e-스포츠 혼성 리그오브레전드 OPEN 중등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윤지(함평영화학교 6)는 혼성 FC 온라인 OPEN 초등부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박희중 기자

## 화순군체육회 등 15곳 '행복나눔교실' 운영

전남도체육회가 소외계층 및 다문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2026년 행복나눔교실'을 운영한다.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2026년도 제2차 스포츠 클럽육성위원회를 열고 '2026년 행복나눔교실' 운영 개소 15개를 최종 선정했다.

행복나눔교실은 소외계층 및 다문화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 스

포츠 참여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한 여가활동 여건 조성 및 사회참여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가 예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2026년 행복나눔교실'은 구례군체육회, 화순군체육회, 강진군체육회, 해남군체육회, 영암군체육회, 함

평군체육회, 영광군체육회, 장성군체육회, 완도군체육회 등 9개 시군체육회와 전남댄스스포츠연맹, 전남레슬링협회, 전남스쿼시연맹, 전남유도회, 전남펜싱협회, 전남피구연맹 등 6개 회원종목단체로 총 15개 단체다.

특히, 선정된 종목에는 회원단체 추천을 받아 전문지도자를 배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체육용품 등을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지원된 용품을 해당 시설 및 단체에 기증해 지속적인 체육활동 환경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박희중 기자

## KIA, 불스원 레인OK 협업 상품 출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국내 1위 자동차용품 전문 기업 불스원의 글래스 케어 전문 브랜드인 '레인OK'와의 협업 상품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레인OK는 유막 제거, 발수 코팅 등 운전 시야 개선을 위한 통합 솔루션 브랜드이다.

협업 상품으로는 푸시그립 세트와 와이퍼 등 총 2종이 출시된다. (사진)

푸시그립 세트에는 유막 제거제와 발수 코팅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마스크트 하랑이가 들어간 패키지와 야구공 모양의 케이스로 제작돼 야구팬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상품은 14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주홍철 기자

## 생활체육으로 '건강 100세' 열자

제21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14-15일 장성서 열린 한마당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체육한마당 축제인 제21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이 14일부터 이틀간 장성군 일원에서 열린다.

'뛰어라 전남, 빛나라 장성! 통합의 시대, 더 큰 미래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축전에는 도내 22개 시·군 선수단과 임원 등 총 2천97명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화합과 우의를 다진다.

대회는 14일 오전 10시30분 장성 흥길동체육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종목별 경기가 진행된다.

장성호국구장에서는 게이트볼, 백학정에서는 궁도,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는 그라운드골프, 흥길동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 축령산 일원에서는 산악, 위라벨 돔 경기장과 삼계테니스장에서는 소프트테니스, 장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체조, 장성군민회관에서는 탁구, 장성군 파크골프장에서는 파크골프 등 총 9개 종목으로 9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장성군은 지난해 제6회 전남체육대회 개최에 이어 이번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그리고 오는 9월 제38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까지 역대 최고의 성공대회로 치른다는 각오다.



지난해 영광에서 열린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에서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건강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은 고품위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및 생활체육 참여 확대는 물론, 도내 지역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는 전남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완도군(141명), 광양시(129명), 해남군(120명), 고흥군(119명) 등 대규모 선수단이 참가하면서 매년 시·군별 참가자들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대축전이 어르신 여러분께 활력과 즐거움을 드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